



뉴욕장로연합회는 제73차 조찬기도회를 20일(목) 오전 8시 플러싱 나사렛교회에서 가졌다.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회장 송윤섭 장로, 세 번째가 설교자 박해림 목사.

뉴욕장로연합회 73차 조찬 기도회 “은혜로웠다”

뉴욕장로연합회(회장 송윤섭 장로)는 제73차 조찬 기도회를 20일(목) 오전 8시 플러싱 나사렛교회(담임 박해림 목사)에서 가졌다.

기도회는 친교부회장 배상규 장로가 인도했다. 임례송 ‘주 없이 살 수 없네’, 기원, 찬송 ‘이 죄인 완전케 하옵시고’, 다민족선교대회 준비위원장 오강석 장로의 기도, 인도자의 성경 봉독, 박해림 목사의 설교, 합심 통성 기도와 찬양부회장 김재관 장로의 마감 기도, 장로연합회중창단의 특송 ‘목

마른 자들아’, 헌금, 감사 남태현 장로의 헌금 기도, 회장 송윤섭 장로의 인사, 홍보부회장 신승룡 장로의 광고, 찬송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박해림 목사의 축도, 선교후원회장 임형빈 장로의 식사 기도, 조찬 순으로 진행되었다.

박해림 목사는 골로새서 1장 24-29절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어디로부터 왔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며

“지식과 존재와 행동(Knowing, Being, Doing)이 조화를 이루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요지의 설교를 했다.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박해림 목사의 사역과 플러싱 나사렛교회를 위하여, 2월 21일(금)에 심장 수술을 받는 전 회장 김영호 장로를 위하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김재관 장로가 마감 기도를 했다.

기도회를 마친 뉴욕장로연합회는 금번 기도회에 드러진 헌금 577달러 전액을 나사렛교회에 전달했다.

매월 교회들을 순회하며 조찬 기도회를 갖고 있는 뉴욕장로연합회는 기도회 때 드러진 헌금 전액을 기도회 장소와 아침 식사를 제공해 준 교회에 전달해 오고 있다.

뉴욕장로연합회 제74차 조찬 기도회는 3월 19일(목) 오전 8시 좋은목자감리교회(담임 김신영 목사)에서 있을 예정이다. 좋은목자감리교회는 130 W. Old Country Road, Hicksville, NY 11801에 위치하고 있다.

(기사·사진 제공=복음뉴스)